

## 제25호 삼익진흥건설(주) 김무성 부장

### 웃음꽃 피어나는 안전한 현장



**달**리는 차창 안으로 넘어오는 햇살이 무척이나 따사롭다. 동장군의 심술도 이겨낸 듯 하이얀 매화가, 노오란 개나리가 살짝 살짝 얼굴을 내밀고, 황량하던 잔디밭도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난다. 만물에 영생을 불어넣는 봄 햇살처럼 넉넉하고 푸근한 우리 시대의 안전인을 삼익진흥건설(주)에서 만나보았다.

#### ■ 찾아 노력하는 안전인

1966년 2월에 설립되어 금산 IC 의항-황충간 군도개설사업 등을 성공리에 완공한 작지만 내실있는 기업, 삼익진흥건설(주)에서 만난 김무성 부장은 중기를 담당하던 95년 재해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후 틈틈이 자료를 찾고 공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 현재 '예산신양도로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 ■ 웃음 가득한 얼굴로 현장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교육 시행

모든 일의 출발을 웃음 가득한 얼굴에서 시작한다는 그는 근로자뿐 아니라 만나서 모든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서두를 연다. 밝은 웃음 속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사고의 위험이 없음은 물론, 적극적이며 그로 인한 효율 증대로 경제적인 효과까지 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점검·관리, 교육 등 항시 '웃는 모습으로 출근하여 그 모습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가자' 고 강조하는 그는 재래형 재해 근절을 중점 관리하며 안전교육에 힘쓴다. 월 1회 실시되는 정기교육외에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OJT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현장에 적용토록 한다.

또한, 2004년 회사의 '문제 의식, 대안 의식, 해결 의식' 의 3가지 의식 갖기 운동에 '안전 의식' 을 더해 4가지 의식 갖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김무성 부장은 안전관리를 하는 자신 뿐 아니라 각 부서장이 팀을 조직하여 현장을 순찰하고 관리하는 등 삼익진흥건설(주) 모든 식구가 노력함으로써 안전한 현장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얘기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테니스를 즐긴다는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현장이 건강한 현장, 웃음 가득한 명랑한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기자〉